

우리의 다시 살길(3)

韓稚振

이래서 無產者로서 現下 有產者를 爲하여 存在하는 學校에 入學하여 自己가 要求하는 쇠는 姑畲하고 强者가 쓰는 生活쇠라도 學得하여 使用하겠다는 것은 妄想에 갓삼다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一言으로 蔽하면 別窮理 造出하여야 사라갈 수 있다는 것이다. □□히 述함과 가티 生存하는 데는 쇠가 있어서 器具를 만들며 其 器具를 使用하여 周圍 環境과 調□해야 하는 것이며 이래서 生存問題는 器具問題, 즉 智識問題인 것이라 하였다. 그러면 엇더한 方式, 方法으로든지 環境과의 調□할 쇠만 어덧스면 그만일 것이나 現下 教育機關에서 得하거나 다른 데에 그만한 쇠부리는 力을 得하였스면 現下의 入學難가튼것을 免할 수 잇슬 것이다.

勿論 現下 學校들이 가르쳐 주는 쇠, 즉 智識 外의 別다른 種類의 쇠가 잇슬지나 거기에 對한 陳述은 後期로 밀고 다만 現下 教育機關들이 가르쳐 주는 그러한 쇠가 現實生活에 必要하다는 前提를 하고나서 그 쇠를 求하는 方針을 指示해볼가한다.

勿論 有產者의 子弟는 그대로 現代 式의 學校에서 學識을 求하게 될 것은 別問題하고 無產者의 子弟에 限하여서는 以下 論意를 擇하는 外에 他道가 업스리라하며 現今 有權者 中에서도 不遠間 大多數는 無產, 無□者로 化하고 말지니 이러한 大多數의 無產群의 教育이 멀지 안아 教育方法, 즉 生存하기 爲한 쇠를 工夫하는 方法을 採用할 줄 信하며 採用하는 外 他道가 업스리라 한다.

四

내가 말하고자 하는 生存의 쇠를 엇는 方法은 아조 簡單하고도 □徑인 줄 안다. 이 簡單法과 □徑法이 곳 無產者 大群에게 滴合되리라하는 理由이다. 方法을 三□件으로 記述하면

一, 現實 生活競爭의 □□及 性質內容을 分析하여 그 周圍 環境과의 調和하는데 要求될 必要 器具, 즉 쇠를 分明히 認知할 것

二, 이러케 알은 쇠의 性質을 表□살아가지고 現下 各 □學校에서 가르쳐

주는 쇠, 즉 現實生活을 勘하는 智識分의 如何를 如何해야 알게 되지만 莫眞分을 數十年間 小, 中, 大學을 通하여 가르쳐주는 從來의 方法대로 學得할 생각 말고 可及的 短한 時間을 如何해야 學得케할 것

三, 이럼으로 過去와 如何 만흔 時間을 贊해야 小, 中, 大學을 工夫할 必要가 업시 적어도 四五年間 現下 生活에 分明히 要求되는 그 쇠만 즉 知識만을 專攻케할 目的으로 그에게 適宜한 機關을 設立할 것

以上の 如何를 議論하자면 現實生活에 要求되는 器具, 즉 智識만을 分明히 定해야가지고 그것을 短期間에 專攻하게해야 教育을 普遍化하자는 것이다. 實相말이지 現代 教育機關이 小, 中, 大學을 通하여 주는 實生活術은 比較的 少量인 바, 그 少量일망정 分明히 擇해야 그것만 學得하자면 四, 五年이면 滿足하다할 수 잇스며 數多한 時間과 精力을 實生活과의 아모 關係도 업는 것을 學하노라고 消滅하는 것은 貯蓄되리라 한다. 이래서 우리가 以上과 如何 生活의 要求되는 쇠 그것만자서 專攻할 수 잇다하면 無產者 大衆은 學皆 生活하는 쇠를 得할 수 잇다한다. 勿論 四, 五年間 注學하기도 難한 處地가 만홀지나 구태여 四, 五年을 꼭 在學하지 안코도 生活의 要求되는 그 쇠를 學得할 수 잇을 것이다. 그는 生活의 眞正한 쇠가 學班에서만 배울 것이 아닌 性質을 가진 緣故이다.

여기에 큰 反問이 한아 起할 것은 비록 以上과 가티해야 四, 五年에 數十年의 小, 中, 大學의 智識을 엿는다 하더라도 現下 制度와 人類性을 그대로 두고는 다 가티 資格을 가진 者 中에도 小, 中, 大學을 擇한 者를 有力하게 녀기고 使用하는 世態이니 이엇지 알고도 살 수 잇슬가할 것이다. 勿論 現代의 制度를 表準하고 其 裡面에 如何해야 살것다는 생각아래에서는 그 反問이 眞理가 된다할 수 잇겠다. 더구나 現今에 잇서 實力은 如何間 所謂 地位니 學位니 하는 各 稱이 뒤에 달려야 有資格으로 아러주는 時局에 實力主義만 도 所用이 업게되는 今日이니까 더 말할 것이 업겠다. 그러나 如此한 實力을 否認하고 假面的인 나의 地位各位를 萬事의 標準으로 아는 그 社會는 벌서 有產者, 有權者의 世界인 것을 알리는 것이며 實力보다 各位를 보는 사람은 비록 只今에 잇서 强者의 無道를 非難한다하드래도 그는 內面으로는 現下 强者의 擄取性의 如何를 그대로 가지고 잇스며 又 非難은 單絶한 如何의 心術에서 生起하는 것이다. 이 뿐 아니라 無產者라고 入學을 許치 안는 것을 부득부득 入學하려고 힘쓰고 非難만하는 것 가튼 것은 其 裡面에는 恒常 無產者인 自己들을 標準삼지 안코 恒常 有產者를 標準해야 凡事를 判斷하며 그리하기 때문에 그러한 非難이 生起하는 것이다. 凡事에 自己를 表準치 안코 自己와 別異한 他를 表準하는 것은 實로 矛盾이다. 다시 말하면 弱者는

自己를 標榜하고 自己가 取해야할 方法을 爲하여 競爭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름 길을 차저야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이 眞理가 곳 以上の 論을 記하게 한 것이니 弱者로써 不能한 有産者의 現下 小, 中, 大學을 通去할 生意보다 自己의 生存의 要求되는 焦點과 現下 小, 中, 大學이 주는 生存保術을 □發해야 그것들을 捷徑的으로 專攻해야 알자는 것이다. 이것이 實로 弱者의 다시 살 길이요, 窮理이니 窮理대로 하자면 有産者를 爲하여 存在하는 機關에 加入할냐고 애쓸 必要도 업사한다. 애써도 不能이지만 이 分離가 弱者의 解放의 距離를 短縮케 하는 것이다. 어터케 하면 入學難도 업서질 것이요, 有權者 機業難도 업서질 것인가? 오즉 살 方法은 自己를 中心한 窮理가 잇서야 하나니 이 窮理가 上□한 生活와 엇는 方法이다.